

오늘이 좋다

2014년 가을도 저물어 가고 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대체 올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 2014년 1월, 올해는 꼭 이루리라 다짐했던 일 중 나는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해내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니 부끄러워진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늘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2005년 3월 확실한 전공 선택도 없이 언어문화학부에 입학하여 처음 맞이한 여름방학에, 우연한 계기로 『추안급국안』 번역 및 역주팀의 연구보조원 제의를 받았다. 한자(漢字)의 ‘한(漢)’자도 몰랐던 때였는데 뜻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해 보겠다고 용감하게 자청하였다. 그때의 나는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인 까막눈이라, 글자를 대조하여 교정을 볼 수준은 고사하고 ‘원문과 번역 원고를 억지로 끼워 맞춰 가는 수준’이었는데 신기하게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다. “시간가는 줄 모른다.”라는 말을 그때 실감했다. 고전 번역과 내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사업팀에서 원문과 번역문 대조 작업을 하기 위해 한자 급수 자격증을 땀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또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경서’와 ‘사서’도 즐겁게 공부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한국고전학연구소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번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새내기 1학년 학생이 『추안급국안』의 사업팀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번역사업팀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까지,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참운이 좋았다. 우연한 계기로 한문 공부에 눈뜬 그때가 그러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보다 큰 꿈을 꾀야겠다고 다짐했던 그때가 그러하였고, 연수원에 들어가 한문 공부를 해 보라고

지도해 주시던 때가 그러하였다. 내가 디더 온 걸음은 오롯이 나의 결정과 판단만으로 땀 발걸음이 아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전주대 한국고전연구소 연구원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강 지 혜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이 문을 연 2006년 9월, 개소식에 참석하신 각계 저명한 인사 앞에서 부원장님께서 당시 학부생이었던 연구보조원들을 ‘고전문화학연구원의 꿈이요 미래’라고 소개하신 그날을 기억한다. 그때는 그저 막연히 감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그 말씀의 무게를 실감한다. 내가 받은 많은 사랑과 지지를 이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고 어깨도 무겁다.

홀쩍 가 버린 듯한 2014년도 매우 유의미한 해이다. 드디어 『추안급국안』 번역서 90권이 출간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시작과 끝맺음을 함께한 기분이다. 지난 10년을 바빠 살았지만 간단하게나마 적어 보니 후회보다는 보람이,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크다. 지금껏 디더 온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도 크다. 헛되지 보낸 어제에 연연해하며 오늘을 부질없이 보낸다면 내일 역시 후회만 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내일, 심지어 어제도 기분 좋게 바꿀 수 있는 선물이다. 이것이 오늘날의 아쉬움을 접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길을 재촉하는 이유이다.

제법 쌀쌀한 가을날 연구원 회원님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오늘이 되시길 바란다.

오늘이 좋다.

| 연구원 소식 |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 독도 강의 실시 (9.5)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독도 강의를 완주 삼우중학교와 장수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삼우중학교는 송정현 연구간사가, 장수고등학교는 임숙정 연구실장이 맡아 주었습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강의를 마무리되었습니다. 14회에 걸쳐 실시한 독도 강의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 맞물려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감정적 대응에서 이성적 논리로 대처하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은 우리땅 독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37회 문화강좌 실시 (9.27)

상반기에 독문학과 일문학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하반기 첫 문화강좌는 중문학의 문학작품을 소재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김명희 교수(전남대학교 중문과)가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는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쉰의 『광인일기』와 『아Q정전』이었습니다. 루쉰의 절망에 대한 항전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하여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고민을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뒤풀이에서 뜻다한 질문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2014년 9차 운영위원회 개최 (10.2)

운영위원회가 연구원 강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명수, 김건우, 하태진, 최우영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연구원 이전 방안과 향후 연구원의 제반 일정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추안급국안』 출판 기자간담회 및 학술대회 개최 (9.30)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과 컨소시엄을 맺고 있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추안급국안』이 출판되었습니다. 『추안급국안』은 1601년(선조34)부터 1892년(고종29)까지 약 300년에 걸친 중죄인에 대한 심문 재판 기록으로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대인들의 사회적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이 담긴 또 하나의 실록이라 일컬어질 만큼 역사적 가치가 큰 문서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10명의 연구자들이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90책으로 번역,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자간담회에는 많은 방송사 및 언론사의 열띤 취재로 『추안급국안』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안급국안』의 역사적 가치와 담긴 내용을 살피고, 향후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학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추안급국안』의 번역에 힘쓴 번역자와 이를 뒷받침한 연구보조원, 그리고 번역서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힘써 주신 흐름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강좌 안내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4시
주제 : 신채호 선생의 단군관 변화
강사 : 박병훈(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장소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강의실

이사회 개최 안내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오후 4시
장소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강의실